



| 주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임호빌딩) 6층

| 메일 : 416network@gmail.com

| 홈페이지 : 416act.net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4.16연대 (담당 : 이정일, 류하경, 오민애 변호사)

제 목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의도된 모욕, 조작된 허위사실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날 짜 : 2020. 4. 8.

(사)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입장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의도된 모욕, 조작된 허위사실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1.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를 포함, 일베, 일부 유튜버 등의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향한 악의적이고 의도된 모욕, 조작된 허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말씀드립니다.
2. 우선 우리 가족들은 일부 정치권과 혐오 모독 세력들에 의해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모든 이들은, 6년째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유가족의 사생활에 속한 문제이기에 지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4. 그 사이 당사자들과 법률대리인단은 일부 유튜버와 포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위사실의 유포,조롱, 모욕과 혐오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허위적시의 명예훼손, 모욕 등)와 게시 삭제 가처분 절차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유가족의 사생활 문제이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가족 상당수는 정신적 질환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와 혐오 발언에 예민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4월입니다. 이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도 더 이상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에 공식 입장을 자제해 왔습니다.
5. 그러나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당사자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 도를 넘는 모독 행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끝까지 가해자들을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해자들의 행위를 낱알이 밝히겠습니다.
6.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가족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는 유가족이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꼭 기억해주시시오.